

차오원쉬엔(曹文軒)의 『초가집(草房子)』 연구

박남용* · 한 글**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차오원쉬엔(曹文軒)의 아동문학에 대한 관점
3. 『초가집(草房子)』의 인물유형을 통해 본 서사구조
4. 『초가집(草房子)』의 예술적 특징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아동문학이란 이른바 “소년 아동들의 생활과 정신생명의 성장을 표현하는 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성인들 사이의 문학 활동과 정신적 대화를 보여주는 성인들의 문학과는 구별되어 주로 “성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는 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는 즉, 주로 성인들에 의해 창작되는 아동문학 이론, 아가(兒歌), 아동시, 동화, 아동소설, 아동산문, 아동희극, 아동우연, 아동과학문예 등 9가지 영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아동문학은 중국 현·당대 문학사에서 시, 소설 장르처럼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BK21연구교수, parknamyong@hanmail.net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생, 10141yr@naver.com

1) 王泉根 主編, 『兒童文學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3쪽.

2) 林煥彰과 杜榮琛은 중국 당대 신시기의 아동문학을 살펴보며 위와 같이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林煥彰 杜榮琛 合著, 『大陸新時期兒童文學』,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1996.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여성문학처럼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 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의 아동문학은 근대문학 출발과 함께 중국 현·당대 문학사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창작 성과와 발전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크게 만청 시기, 현대 시기, 당대 시기 등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중국문학의 역사 속에서 아동문학의 지위를 살펴보면, “고대로부터 민간전승의 아동문학이 있었지만” “넓은 아동관의 제약 때문”에 “고대 전적과 야사 등에서 아동용 읽을거리를 편찬하려고 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19세기 후반이 되어서 격렬한 반제반봉건(反帝反封建) 사상이 봉건주의 아동관의 해체를 촉진하여 아동문학이 비로소 장르로 거론되게 되었고”, “1909년 순류시우(孫流修)가 주재하던 『동화(童話)』의 창간으로 중국 사회의 아동과 아동문학에 대한 사고방식이 변화되었다.”³⁾ 이후 약 10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중국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문학 방면에서도 아동문제가 청년문제나 여성문제처럼 새로운 문학의 큰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최근 메이자링(梅家玲)의 연구에 따르면, 량치차오(梁啟超)는 「소년중국설(少年中國說)」과 「신중국미래기(新中國未來記)」 속에서 현대성, 계몽서술과 국족상상 간의 복잡한 관계를 ‘소년’ 속에서 발견하였으며, 1920년대의 예성타오(葉聖陶)는 『예환지(倪煥之)』에서 ‘청년’과 ‘아동’의 갈등을 토론했으며 ‘교육소설’적인 차원에서 청춘과 계몽의 문제 탐색을 시도하였다.⁴⁾ 국내의 이영구(李永求) 교수는 「葉聖陶의 童話 研究」라는 글에서 예성타오는 중국 아동문학발전사에 커다란 공헌을 했으며, 그의 동화집 『허수아비(稻草人)』는 중국 현대아동문학의 출발점이자 귀감으로 문학

3) 蔣風, 「中國近代兒童文學의 歷史와 現況」, 『아동문학평론』, 제18권 제3호, 1993.9, 31-32쪽.

4) 梅家玲, 「發現少年, 想像中國: 梁啟超“少年中國說”의 現代性, 啓蒙論述與國族想像」, 『漢學研究』第19卷 第1期, 249-276쪽. 梅家玲, 「孩童還是青年? --- 葉聖陶教育小說與二〇零年代青春/啓蒙論述的折變」, 『臺灣文學研究集刊』第2期. 이상의 梅家玲의 연구에 대해서는 徐蘭君, [美]安德魯·瓊斯(Andrew F. Jones) 主編, 『兒童的發現--現代中國文學及文化中的兒童問題』, 北京大學出版社, 2011, 12쪽을 재인용함.

사적 위치와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또한 앤드류 존스(Andrew F. Jones)의 연구에 따르면, 루쉰(魯迅)은 소설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아이들을 구하라(救救孩子)!’라고 외치며, 이를 단순히 희망의 상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식의 존재와 서사구조상의 이중부정으로 참신하게 해석할 수 있다.⁶⁾ 이밖에도 저우쥘런(周作人)은 1932년 『아동문학소론(兒童文學小論)』을 출판하는데, 그 책 속에는 「동화약론(童話略論)」과 「아동의 문학(兒童的文學)」 등 아동문학 관련 글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있다. 그는 동화의 정의나 기원의 문제를 밝히면서 아동과 아동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처럼 5·4시기 중국에서 아동의 문제는 새로운 인간 개성과 자유의 발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인간 개성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추구는 곧바로 ‘아동과 청년, 여성의 발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와 목소리를 담은 아동문학이 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5·4시기의 문학연구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예성타오와 빙신(冰心)의 아동문학 창작으로 나타났으며, 루쉰과 저우쥘런에 의한 서양의 아동문학서적 번역과 아동문학적 주장들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중국현대문학이라는 지평 속에서도 아동의 문제는 새로운 문학의 영역 속에서 주목할 만한 문학현상이자 분야가 되었다. 아울러 20세기 3, 40년대 중국의 항일전쟁 기간 동안 항진의식을 고취시키는 아동문학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아동문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창작은 중국 당대문학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은 중국 당대 아동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차오원쉬엔(曹文軒)의 아동문학 창작이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 이래 중국 당대 아동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차오원쉬엔의 아동소설 작품인 『초가집(草房子)』(이하 ‘초가집’이라 함)을 중심으로, 이 소설에 나타난 작가의 아동문학 관점과 인물의 서사구조, 그리고 각종의

5) 이영구, 「葉聖陶의 童話 研究」, 『중국연구』, 제15권, 1994, 317-318.

6) 徐蘭君, [美]安德魯·瓊斯(Andrew F. Jones) 主編, 『兒童的發現—現代中國文學及文化中的兒童問題』, 北京大學出版社, 2011, 10쪽.

7) 周作人 著, 『兒童文學小論』, 河北教育出版社, 2002

예술적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일부는 중국의 중학교 『어문(語文)』 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국내의 교과서에도 게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중 『빨간 기와(紅瓦)』 『까만 기와(黑瓦)』 등과 더불어 성장소설 시리즈의 첫 작품이 되기도 한다. 이른바 『초가집』은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빨간 기와』는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 『까만 기와』는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세계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널리 퍼져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타며 각종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중국의 아동문학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⁸⁾ 뿐만 아니라, 그의 『초가집(The Straw House)』은 1998년 영화감독 쉬경(徐耿)에 의해 영화화되어 1999년 제8회 중국영화동우장(童牛獎)에서 우수각본상(曹文軒), 우수감독상(徐耿), 우수아동연기자상(曹丹) 등 각종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안테르센 동화, 마크 트웨인 소설, 뽕신의 산문 등을 종합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 소설은 2004년 작가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전수정의 번역에 의해 『상상의 초가 교실』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2008년에 『힘센 상상1,2』으로 제목을 바꾸어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창비 어린이』에 실린 김지선의 소개 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에 처음 나온 한 권의 책이 100쇄를 넘겨 중국 출판계에 의미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 그중 93쇄는 장쑤(江蘇)소년아동출판사에서 나왔고, 대만과 해외에서 나온 책까지 더하면 120여 쇠에 달한다.⁹⁾ 이 책은

8) 이 작품은 冰心문학대상, 중국작가협회 아동문학상, 제4회국가도서상(1999), 제4회 전국우수아동문학상(2000), 제5회 宋慶齡아동문학상 소설부문 금상(2000), 2006년 鳳凰傳媒集團 베스트셀러상 등을 수상하며, 대만에서도 최우수독서물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차오원쉬엔의 수상 경력은 『草房子』(曹文軒 著, 安武林 評, 北京少年兒童出版社, 2011, 242-247쪽)을 참고.

9) 2010년 8월 30일 新華報業網-揚子晚報 기사를 참고하면, 이 작품은 국내외를 합쳐 130次나 인쇄되었으며, 8월 29일 중국작가협회는 江蘇少年兒童出版社에서 100次 인쇄가 되어 曹文軒창작성과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金波, 張頤武, 陳曉明, 王泉根, 徐坤, 安武林 등 저명한 작가와 문학평론가가 참석하였으며, 曹文軒을 신시기 이래 가장 뛰어난 소년소설작가의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매년

차오원쉬엔의 『초가집』으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상상(桑桑)’이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보낸 작은 강변마을에서 겪은 사건들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생략) 이 책은 소년소녀의 때 묻지 않은 순정과 우정,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의 의미 등을 아름다운 문체로 펼쳐 보인 서정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국가 도서상, 뽉신 문학상, 전국 우수 아동문학상, 송칭링 아동문학상 등 권위 있는 문학상을 휩쓸었다. 이제 중국의 국민도서(?)가 되어버린 『초가집』이 시간과 세대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책속 마지막 장면처럼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¹⁰⁾

일본에서 출판된 『중국의 아동문학(中國の兒童文學)』은 중국의 아동문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는데, 그 중 차오원쉬엔에 대해서 그의 “소년문학의 기수”라는 타이틀로 그의 등장, 작품의 특징, 자전적 요소, 일본에서의 영화 상영, NHK와 대담 등 크게 언급하고 있다.¹¹⁾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차오원쉬엔의 아동소년소설 『초가집』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아직 국내에는 중국 아동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 당대의 아동문학가를 새롭게 조명하며 아동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²⁾ 또한 중국의 아동문학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학술적 조명을 통해 국내의 아동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확대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차오원쉬엔 아동소설¹³⁾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아동문학 창작

국민추천 도서로 선정되었는데, 沈從文的『邊城』을 계승한 것이『草房子』라고 하였다. <http://hb.qq.com/a/20100830/000151.htm>

10) 김지선, 「중국의 국민도서 『초가집』, 『창비어린이』, vol.8 no.1, 2010, 11-12쪽.

11) 中由美子 著, 『中國の兒童文學』, 久山社, 2006, 87-118쪽.

12)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아동문학 관련 대표적인 석사학위논문으로 2편이 있다. 김현정, 「중국현대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梁啓超, 魯迅, 周作人을 중심으로」,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인숙, 「曹文軒 장편소설 《紅瓦》 연구: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林煥彰과 杜榮琛는 대륙 신시기의 아동문학을 이야기하며 曹文軒을 ‘아동소설’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 이때 ‘아동소설’이라함은 아동문학가가 초등학교의 중학년이나 중학교의 소년들을 위해 창작한 소설을 말하며 ‘소년소설’이라고도 한다. 주제는 건강

배경과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인물들의 서사를 통해 아동소설 주인공들의 꿈과 상상의 세계를 조명하며 성장체험 소설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며 각종의 표현수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당대아동문학사에서 그의 아동문학이 갖는 특징과 의미들을 이해하며 국내의 중국 아동문학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인민문학출판사에서 2010년에 출판한 『초가집』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문 속의 인용문은 주로 국내의 번역본을 활용하였음을 밝힌다.¹⁴⁾

2. 차오원쉬엔(曹文軒)의 아동문학에 대한 관점

차오원쉬엔은 중국 당대 아동문학사에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중국 아동문학의 발전과정 속에 있어서 현대의 아동문학을 살펴보면, 5·4시기 현대의 개성해방과 관련하여 예성타오가 1923년 동화집 『허수아비(稻草人)』가 “중국 동화 창작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는 루쉰의 평가를 들었다. 또한 “환상과 현실의 유기적인 결합과 의인화 수법의 영활한 운용, 그리고 규범적인 언어 사용 등은 오늘까지도 경전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⁵⁾ 1949년 이후부터 문화대혁명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동화 창작 분야에서는 장티엔이(張天翼)의 중편동화 『조롱박의 비밀(寶葫蘆的秘密)』이 비교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환상세계와 현실세

하고 명량하며, 인물은 선명하고 활발하고, 구상이 아름답고 정교하며, 줄거리는 우여곡절이 있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언어는 우아하고 유창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로 생활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사회생활의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심미적·인지적·교육적 역할을 갖고 있다. 林煥彰 杜榮琛 合著, 『大陸新時期兒童文學』,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1996, 58쪽.

14) 본고에서의 원문 인용은 글의 분량상 생략하기로 한다. 曹文軒 著,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2』, 새움, 2008

15) 孫建江, 「中國童話 發展變化過程에 관한 考察」, 『아동문학평론』, 제21권, 제3호, 1996, 95쪽.

계의 넘나듦, 과장과 변화의 수법, 사실주의 수법을 사용하며 예술성을 강조하였으며, ‘보물’을 상징적 의미를 가진 총체로 승화시킨 것 등으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¹⁶⁾ 이러한 중국 현·당대의 중요한 아동문학적 성과는 1980년대의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창작으로 주요한 맥락을 계승하고 있다.

차오원쉬엔은 1954년 1월, 장쑤 옌청현(江蘇 鹽城縣)에서 출생하였으며, 중국작가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이며 현재 북경대학교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재직 중이다.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작품 창작은 1983년 2월 『뿔이 없는 소(沒有角的牛)』(중편소설, 江蘇少年兒童出版社)를 시작으로 1991년 12월 『산양은 천국초를 먹지 않는다(山羊不吃天堂草)』(장편소설, 江蘇少年兒童出版社), 1997년 『빨간 기와』(장편소설,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7년 『초가집』(장편소설, 江蘇少年兒童出版社), 2005년 4월 『청동 해바라기(青銅葵花)』(장편소설, 江蘇少年兒童出版社) 등 약 20여종의 소설집과 1988년 6월에 출판한 『중국의 80년대 문학현상 연구(中國八十年代文學現象研究)』(北京大學出版社), 1997년 『차오원쉬엔문학논집(曹文軒文學論集)』(21世紀出版社), 2010년 1월에 출판한 『다 타버린 줄(一根燃燒盡了的繩子)』 등의 이론서들이 있다.¹⁷⁾ 그는 “『안녕 상싱(再見了, 我的星星)』으로 중국작가협회 제1회(1980-1985) 아동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아동문학 관념의 갱신(兒童文學觀念的更新)』으로 제1회 전국 아동문학이론평상 우수논문상을 수상했고 『중국의 80년대 문학현상 연구』로 중국당대문학연구회가 반포하는 제2회 문학평론 과연장(科研獎)을 수상했다. 또한 아동소설 『산양은 천국초를 먹지 않는다』는 제3회 송칭링아동문학상(1986-1992) 일등상 등을 수상하였다.¹⁸⁾ 차오원쉬엔의 작품들은 국내에도 다량으로 번역되어 ‘차오원쉬엔붐’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문학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소개되고 있다.¹⁹⁾ 이에 대하여 그는 “내 책과

16) 孫建江, 「中國童話 發展變化過程에 관한 考察」, 『아동문학평론』, 제21권, 제3호, 1996, 98쪽.

17) 曹文軒의 작품 出版年表는 『草房子』(曹文軒 著, 安武林 評, 北京少年兒童出版社, 2011, 239-241쪽)와 王玲의 석사학위논문 부록 참고. 王玲, 『童心的古典守望—論曹文軒的兒童文學觀及創作』, 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35쪽.

18) 林煥彰 杜榮琛 合著, 『大陸新時期兒童文學』,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1996, 62쪽.

한국은 웬지 깊은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중국의 문학이 날이 갈수록 미학적 인 면에 무관심해지는 이 때, 나는 한국의 문학작품, 영화, 드라마의 미학적 정서가 나의 그것과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독자들은 내가 희망하고 좋아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독자들이 부담 없이 내 작품을 읽게 된다면 나는 그 사실에 기쁨과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라고 한국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²⁰⁾ 차오원쉬엔의 아동소설이 비교적 국내 독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상호 만남의 지향,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의 세계의 추억, 편안한 서정풍경과 감동적인 따뜻한 감정 등 차오원쉬엔 특유의 동화적 상상력이 맑고 명랑한 언어를 통해 한국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세계는 무엇보다도 작가의 철저한 아동에 대한 이해와 어린 시절의 자전적 체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 주요한 주제와 제재, 그리고 모티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는 『초가집』 『영원을 따라서(追隨永恒)(代跋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 명제를 제출하려면 우선 우리는 오늘날 아이들이 그들만의 ‘오늘’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의 아이들과는 달리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라는 전제를 인정해야 한다. 이 명제를 제출하면서 우리는 역사의 장엄함과 무거움을 느낀다. (생략) 그 명제는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주고, 생활태도를 관찰하고, 생활 방식을 경험하며, ‘문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까지 직

- 19)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상상의 초가 교실』, 새움, 2004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꿈의 무늬』, 새움, 2005
차오원쉬엔 저, 양태은 옮김, 『바다소』, 다림, 2005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청동 해바라기』, 사계절, 2007
차오원쉬엔 저, 김택규 옮김, 『사춘기』, 푸른숲주니어, 2007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2』, 새움, 2008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빨간기와』(개정판), 새움, 2009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까만기와』(개정판), 새움, 2009
20)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청동 해바라기』, 사계절, 2007, 5-6쪽.

접적으로 맞닿아 있다.”(268-269쪽)

“우리는 오늘날 아이들이 처한 환경의 선악과 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신이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쉽사리 오늘날의 아이들이 처한 상황을 판단하고, 동정심에 겨워 눈물로 호소하는 방법들에 대해 지금까지 나는 옳다고 여긴 적이 없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도덕적 의로움의 힘이고, 정감의 힘이고, 지혜와 아름다움의 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영원히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271쪽)

“작가라면 모두들 각자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 진실한 생활을 했다면, 그리고 진실하게 그것을 써내려 간다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의 생활을 잘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²¹⁾

차오원쉬엔은 “오늘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 하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망, 감정, 행동양식, 나아가 기본적인 생활환경 모두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이별, 유랑과 정주, 그리고 이별과 만남, 슬픈 감정,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상부상조하는 것, 고독한 가운데 이해하고, 냉담한 가운데 묵묵히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것”²²⁾이라고 말하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그가 문학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다.

차오원쉬엔은 1988년 『중국의 80년대 문학현상 연구』를 출판하며, 제14장 「각성, 변화, 곤혹: 아동문학(覺醒, 嬗變, 困惑: 兒童文學)」에서 아동문학에 관한 자신의 견해들을 충분히 밝혀 주고 있다.²³⁾ 그는 1980년대의 중국은 자신의(중국) 과거를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시대를 결연히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아동문학은 새로운 사상을 확대하며 각성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정신을 생성시켜야 하면서도 새로운 곤혹감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역사적 사

21)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8, 271-272쪽 참고.

22) 曹文軒 著, 「追隨永恒(代跋一)」,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293쪽.

23) 曹文軒 著, 『中國80年代文學現象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8, 308-326쪽 참고.

명 앞에서 “아동은 민족의 미래”이므로 “아동문학 작가는 민족 미래 성격의 창조자”이고 “아동문학 작가는 장엄하고 신성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미래의 민족성격을 창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아동문학은 비로소 깊이 있는 역사적 내용과 풍부하고도 새로운 정신, 그리고 강도와 힘을 지닌 작품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선량함과 동정심, 소박하고 따뜻한 중국 민족의 성격적 풍부함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동문학도 문학의 일부로써 교육적 역할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성’이 아동문학의 유일한 속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아이들이 인생의 오묘함과 진리를 탐색해 나가도록 인도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심미의식을 배양하며 아이들의 영혼과 감정을 정화하고, 아이들의 생활에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갖게 하며, 아이들의 도덕과 정치적 측면의 교육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차오원쉬엔은 특히 그의 아동문학 이론을 펼치면서 아동문학이 갖는 ‘이야기성(故事性)’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문학 독자를 쉽게 끌어들이기 위한 이야기성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보며, 이야기성을 중심으로 자연 풍경 묘사나 세상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야만 어린 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오원쉬엔은 당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아동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아동문학은 즐거리가 탄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자신의 관점을 약간 수정하였다. 곧, 이야기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린 독자들을 강렬하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즐거리가 없다면 그 작품은 그저 자질구레한 묘사로 생생한 예술형상을 그려내는 작품일 뿐이며, 내재적인 선한 감정을 묘사하는 작품일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²⁴⁾ 이처럼 그는 견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을 이야기 꾸미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초가집』과 『붉은 기와』 같은 소설에서도 이야기성을 크게 부각시켰다.²⁵⁾ 그는 또한 아동문학의 언어풍격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학년이나 중학생에게는 그

24) 曹文軒 著, 『中國80年代文學現象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8, 315-316쪽 참고.

25) 曹文軒 著, 『文學是不死的(代跋二)』,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305쪽.

나이에 걸맞은 언어를 써야지 저학년애 맞는 정식화된 언어처럼 틀에 박힌 언어, 예를 들어, 볼은 둥글둥글, 콧날은 높게, 얼굴은 꽃떨기처럼 붉게, 즐거운 체비처럼, 작은 주먹을 꼭 쥐 듯한 언어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땡신의 『어린 독자들에게 부치며(寄小讀者)』의 언어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하며, 아동문학도 문학이므로 문체를 충분히 고려해야 작품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작가는 인물들의 언어 외에 서술상의 언어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자신을 아이로 바꾸어 아이의 말투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작가 본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작가가 자신의 말투로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독자의 이해 능력을 근거로 한 것이지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서술적 언어로 삼은 것은 아니다. 즉 차오원쉬엔은 아이들이 실제로 쓰고 듣고 말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만의 언어적 특징을 쉽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는 아동문학 작품 이름 앞에 ‘성인화’란 세 글자를 쓰는 것을 반대하며 아동문학의 성인화에 반대하였다. 결국 차오원쉬엔의 이러한 아동문학에 대한 견해들은 그가 스스로 아동문학 창작을 하게 된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민족의 미래이고, 아동문학 작가는 민족 미래 성격의 창조자이며, 아동문학 작가는 건전하면서도 신성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책임감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²⁶⁾

3. 『초가집(草房子)』의 인물유형을 통해 본 서사구조²⁷⁾

‘인물’이란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는 영어로 character로써, 인물(人物)과 성격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가운데에 인물 분

26) 이상의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관점은 주로 曹文軒 著, 『中國80年代文學現象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8, 308-326쪽을 참고하였다.

27)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번역된 차오원쉬엔의 소설 『힘센 상상1, 2(草房子)』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번역서에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개성과 연결되어 있는 관심, 욕망, 정서, 도덕률 등의 개념을 포함한 총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의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나뉜다.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다. 이 구성 요소 중에서 인물의 설정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아동문학에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흔히 소설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라는 말로 요약하여 설명 하는데, 이 때 ‘무엇과 어떻게’ 는 궁극적으로 ‘누구’ 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인물은 소설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²⁸⁾ 이 작품에서도 소설의 주인공들이 매우 생동하게 어린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가와 주인공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작가는 자신의 주인공의 모든 세세한 점들, 주인공의 모든 특성과 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행동, 생각, 감정에 역량을 불어넣으며”, “주인공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은 성격을 창조하는 원칙적이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특성을 지닌다.”²⁹⁾ 그래서 바흐친은 주인공과 작가의 관계에서 세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경우를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주인공이 작가를 점유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작가가 주인공을 점유하는 경우로 주인공이 자전적이지 않거나 주인공이 자전적인 경우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주인공이 작가 자신인 경우이다. 이 작품에서는 소설의 구성이 인물 중심으로 제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짙은 소설적 주인공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차오원취엔의 소설 『草房子』 속에 나타난 인물유형을 통해 이 소설에서의 서사구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역경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주인공 상상(桑桑)과 지월(紙月), 전통적 인물로 순수한 젊은 사랑을 보여주는 백작(白雀)과 장일륜(蔣一輪), 소년 가장으로의 변모를 보여주는 세마(細馬)와 두소강(杜小康)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8) 이규정, 『현대소설의이론과기법』, 서울: 박이정 1998, p. 19

29) 미하일 바흐친 지음, 김희숙·박종소 옮김, 『말의 미학』, 도서출판 길, 2006, 28쪽, 29쪽.

1) 역경을 통한 성장의 과정 : 상상(桑桑)과 지월(紙月)

차오원쉬엔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힘든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인물들의 서사구도를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의 주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이란 인물은 이 작품 속에서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인물과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줄거리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소설의 말미에 가서는 상상의 병과 치료의 과정이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남녀 관계의 서사 구도와 아이와 어른 특히, 소년과 할머니의 관계 등으로 소설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 간다. 특히 상상의 어린 마음속에서 순수한 짝사랑의 그림자가 녹아 있는 지월도 이 작품에서는 매우 중요시된다. 그것은 지월에 대한 상상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에는 백작과 장일륜의 관계로 발전하고 어린 아이와 할머니의 관계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월은 사생아로서 외롭게 외할머니에 의해 길러지는 약한 여자 아이로서 똑똑하면서도 재주가 많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조금은 성숙한 아이로 등장한다. 즉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어린 시절의 매우 큰 상처가 된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지월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상상이 다니는 학교로 멀리까지 전학을 오게 된다.

상상의 아버지는 지월이가 어째서 반창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유마지로 전학 오려고 하는지에 대해 단정해서 말했다.

“반창 초등학교 애들이 지월이를 놀리는 게 분명해.”

상상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문기둥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반창 마을 입구에 지월이가 나타났다. 지월이는 머뭇거리며 이쪽을 향해 걸어오다, 류일수를 발견하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동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는 다시 걸음을 내딛었다.

류일수가 길 한가운데 가로로 드러눕고 양편에 두 녀석이 앉았다. 상상은 그제서야 그들이 지월이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상상은

아버지에게서 반창 초등학교의 차주전가라는 아이가 지월이를 괴롭혔다는 얘기를 들었다(아버지는 반창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다). 반창 초등학교에서도 몇 번이나 녀석들을 혼냈지만 워낙 막무가내여서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³⁰⁾

이러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다. “어린 시절이란, 꾸밈없음을 의미하며 본질 그대로의 진실을 의미한다. 이는 인생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인류의 발전과 비슷하다. 인간 사회는 자연을 뛰어 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뛰어 넘었다. 이것이 바로 발전이었다. 하지만 발전 그 자체는 또한 소외를 의미하며, 원시의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은 원시의 완전한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는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도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정취는 우리들을 즐겁게 한다. 또한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는 자신의 완전함을 고차원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바람이 포함되어 있다.”³¹⁾ 어린 시절은 마치 때 묻지 않은 자연과도 비슷하다. 원시의 자연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내면에는 약육강식의 잔인한 현실이 존재한다. 어린아이들의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없이 밝고 순수할 것 같은 어린 시절 속에도 고난과 역경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차오원취엔의 소설 속 인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힘든 경험을 극복하고 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른 예로, 작품 속에는 물론 안정된 가정을 가진 아이들도 나오지만, 이러한 아이들 역시 성장해가면서 대부분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못한다. 『초가집』 소설의 주인공이자 조연으로, 때로는 서술자로 등장하는 상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에서 상상의 아버지 상교(桑喬)는 상상이 다니는 유마지(油麻地)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로 등장한다. 상상 아버지의 주된 관심은 학교 일과 행사로, 학교 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고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관심이

30)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1』, 새움, 2008, 71쪽, 103쪽.

31) 劉緒源, 『2003中國兒童文學年鑒』, 江蘇少年兒童出版社, 2004, 255쪽.

매우 적은 인물로 등장한다. 상상은 결국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상상은 목에 생긴 서루³²⁾로 인하여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살아나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성장통을 겪는 계기가 된다.

한 달 후부터 상상의 목에 있던 종기 덩어리가 물러지면서 차차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상상이 중학교 입학시험을 눈앞에 두었을 무렵에는 기적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그날 아침 일찍 상차오는 엽총을 들고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상차오는 일곱발을 쏜 다음 엽총을 상상에게 건네며 말했다.

“일곱 발을 더 쏘!”

상상은 뜨거워진 엽총을 꼭 잡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총구멍을 하늘 높이 겨누었다. 열네 발의 총성이 울린 뒤 하늘로 넓게 퍼진 푸른 연기가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상상은 소리 높여 울었다.

상상은 죽지 않았지만, 자신은 이미 한번 죽었다고 생각했다.³³⁾

병이 난 상상은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특히 여선생님 온유국의 따뜻한 보살핌과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으로 명의 노인을 만나 서루 병이 완쾌하게 된다. 여기에서 아버지 상교 교장이 평생 자신이 포수라는 신분을 감추고 선생님으로서 살아오게 된 과정이 드러나고 결국 상상에게 총 쏘는 것을 가르쳐 주며 부자지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에서 상상은 소리 높여 울며 “자신은 이미

32) 서병(癩病)이라고도 하며 서루(癩瘻)라고도 씀.

(1) 나력(癩癧)이 곱아 놓이 되어 피부에 구멍이 뚫리는 병증.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결핵에서 볼 수 있다. [영추(靈樞)] <한열(寒熱)>에 “서루(鼠瘻)의 뿌리는 장(藏)에 있으며 그 끝이 목과 겨드랑이 사이에 나온 것이다.(鼠瘻之本, 皆在於藏, 其末上出於頸腋之間.)”라고 하였다. 청나라 막매사(莫枚士)가 편찬한 [연경언(研經言)]에 “쥐의 성질은 잘 달아나서 숨는 것이니…… 누(瘻)의 이름에 서(鼠)라는 말을 쓴 것도 역시 경락(經絡)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는 뜻이다.(鼠性善竄, ……瘻之稱鼠, 亦取竄通經絡爲義.)”라고 하여 서루라고 불리게 된 까닭을 설명하였다.

(2) 벌레의 독이 장부(臟腑)로 들어가서 생기는 누증(瘻症)을 말함. 서루(鼠瘻)는 음식을 가려먹지 못하여 벌레의 독이 장부로 들어가서 생긴 것이다.

33)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험센 상상2』, 새움, 2008, 265-266쪽.

한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습은 과거의 상상과 현재의 상상의 달라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아버지가 변두리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아 낯선 지방으로 떠나는 순간, 지월과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1962년도 8월 오전 유마지는 상상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 이처럼 상상과 지월의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어린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세계로 독자들에게 전해 주고 있다.

상상과 지월의 역경을 극복해 가는 성장 이야기와 더불어 소설의 제1장에서는 머리가 나지 않아 놀림을 당하는 까까머리 소년 대머리 학(禿鶴: 본명 陸鶴)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당당해 지는 이야기나, 입양해 온 아이 세마가 자신의 양부모를 위해 학교 공부도 포기하고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이야기나,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던 집안의 아들 두소강이 자신의 집이 망하고 난 후 역경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 등이 나타난다. 이들 어린 아이들의 세상을 험난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린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세계와 친구들 간의 우정, 슬픔과 희망, 용기 등의 아름다운 미적 감정들이 주인공을 통해 창조되고 있다.

2) 전통적 인물상 : 백작(白雀)과 장일륜(蔣一輪)

차오원쉬엔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유약하고 아름다우며 중국 고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 유형을 띄고 있다.³⁴⁾ 즉, 단정하고 선량하며 모두가 좋아하는 모습이다. 소설 「초가집」 속의 백작 역시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차오원쉬엔은 백작이라는 인물을 환상 속에 등장할 것 같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백작은 유마지에서 내로라하는 미인이다. 백작이 들판을 거닐 때면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녀의 걸음은 차분하기만 했지만

34) 梁瑩, 「游走在兩個世界的尷尬」,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사람들은 오히려 그 모습에 말할 수 없는 조바심을 쳤다. 그녀가 한 곳에서 있으면 마치 바람에 하늘거리는 여린 잎을 매달고 선 오동나무처럼 눈길을 끌었다.
백작은 목소리고 도왔다. 성량이 깊고 풍부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은방울 구르듯 맑았다.³⁵⁾

등장인물 백작은 장일륜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상상의 편지 배달의 실수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뻔하지만, 결국 파혼을 한다. 백작은 간질로 쓰러진 학생 때문에 위기에 빠진 장일륜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가 하면, 다른 여자와 결혼 한 장일륜을 마음에 두고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만다. 이러한 백작의 모습 역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백작이 상상을 또 찾아왔다.
“상상.”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상을 불러냈다.
“장 선생님한테 좀 먼 곳에 숨어 계시라고 해.”
그녀의 눈에 고통스러운 눈물이 맺혔다.

상상이 막 앉으려는데 아노가 소리쳤다.
“저기 저 사람 백작 누나 아니야?”
백작이 걸어왔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백작은 상상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뒤 바로 현 시내로 왔던 것이다. 그녀는 현 시내와 시내 밖 강가를 거의 훑어본 뒤였다. 그녀가 이미 동호를 찾아냈다고 말했다.
“배는 저쪽 다리 아래에 있어. 다른 곳의 강물이 너무 더러워서 거기에 배를 세워놓았대.”
백작이 말했다.
“척소관이 전에 자기네 집 마당에서 쓰러졌던 일을 얘기하던가요?”
상상이 급히 물었다.
“했어.”
백작이 말했다.
“동호 아버지도 말했어. 그리고 이걸 큰일이라고 하면서 배를 정리해서

35)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1』, 새움, 2008, 124쪽.

오늘 밤 내로 유마지로 달려가겠다고 했어. 그 두 사람이 꼭 증명해줄 거야.”

백작은 봄이 오기도 전에 유마지를 떠났다. 강남으로 어머니를 찾아가 그녀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백작은 떠나기 전 다리 근처 큰 나무 아래서 장일륜에게 썼던 편지 보따리를 상상에게 주며 이마로 흘러내린 상상의 머리를 쓸어넘겨 주었다.

“이 편지 한 통 한 통은 다 네 손을 거친 것들이야. 예전에는 네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네 거야. 이제 이 편지들을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이 다음 어른이 돼서 다시 보면 그때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속에 네 백작이 있을 테니까.”³⁶⁾

차오원쉬엔은 여성 인물을 아름답게 묘사함으로써 그 이면에 중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상은 중국 고전에 그 기준이 있다. 이러한 백작과 같은 인물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분명 현실성이 떨어지는 캐릭터이다. 하지만 완전무결에 가까운 아름다운 묘사를 통하여 중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백작과 사랑에 빠지는 상상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장일륜 역시 그에 뒤지지 않는 미남이다. 훗칠한 외모와 그에 걸맞은 깔끔한 성격에 훌륭한 예술적 감각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장일륜의 묘사 역시 백작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 소년 가장으로의 변모 : 세마(細馬)와 두소강(杜小康)

차오원쉬엔의 남성 인물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어떤 민족적 책임감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견디는 모습으로 그려진다.³⁷⁾ 성장이란, 어린아이에서 어떠한 일에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것은 차오원쉬엔 소설 구성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로, 등장인물을 통하여 드러난다. 먼저, 세마는 마을에 아이를 낳지 못한 구씨 부부가 입양한 아들이다. 구씨 형의 막내아들이

36)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2』, 새움, 2008, p.143, pp.144-5, p.168

37) 梁瑩, 「游走在兩個世界的尷尬」,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있던 세마는 구씨 집에 처음 입양되었을 때만 해도 철부지 어린아이였다. 강남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마을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학교 공부도 시원찮아 결국 학교도 그만 두고 양을 치며 지내게 된다.

장일륜은 아이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지 몇 장을 세마에게 주며 풀어보라고 했다. 책상 위에 놓인 시험지를 앞에 두고 세마는 눈을 끔벅이며 시험지를 들여다보다가 한참 만에야 풀기 시작했다. 한참 답을 적다가 멈추고는 코를 후벼파기도 하고 귀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며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장일륜이 시험지를 본 뒤에 상차오에게 말했다.
“세마는 3학년도 벅차겠는데요.”

대머리 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촌뜨기!”

세마는 무슨 뜻인지 몰라 대머리 학을 바라보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대머리 학이 한 말이 무슨 뜻이냐는 의미였다.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다.

세마는 아이들이 왜 웃는지 모르면서 자기도 웃어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을 따라 웃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대머리 학이 한번 더 말했다.

“촌뜨기 자식!”

세마는 대머리 학이 뭐라고 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이 목소리를 모아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촌뜨기야!”

세마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따라했다.

“촌뜨기 자식!”

그러자 아이들이 데굴데굴 구르며 배꼽을 잡기 시작했다.³⁸⁾

두소강은 세마와는 달리 성실하고 똑똑한 아이이다. 하지만 지나친 자만심과 욕심으로 종종 상상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등, 전형적으로 귀하게 자라

38)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2』, 새움, 2008, 75쪽, 76쪽, 168쪽.

온 인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여자 아이와 같은 얼굴색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유약한 이미지로 묘사된다. 자전거 사건과 배 사건으로 상상은 두소강에게 상처를 받는다.

두소강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머리 하나쯤 더 달린 만큼 키가 컸고 적당한 체중에 혈색이 여자아이처럼 빨그레 했다.³⁹⁾

하지만 이 두 인물은 각각 양아버지의 죽음과 집안의 몰락이라는 역경 속에서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된다. 두 등장인물은 성장이라는 힘을 통하여 어린 아이에서 용감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자라게 된 것이다. 세마는 양부모 밑에서 생활을 하며 차츰 성장하기 시작한다. 살아오던 환경이 바뀌면서 겪는 고난, 파양되어 집으로 돌아갈 뻔 했던 일, 양아버지인 자신의 작은 아버지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점점 더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여준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구씨댁을 살뜰히 보살필 뿐만 아니라, 가장이 되어 집안을 다시 일으킨다.

구씨댁은 세마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세마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였다. 발에 걸친 신발은 이미 너털너털해져 발가락이 쭈 나와 있었다. 마른 탓인지 눈은 움푹 들어갔고 앞니 몇 개가 두르러지게 커 보였다. 반면에 구씨 댁은 여전히 깨끗한 옷차림과 정갈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틀어 올린 그녀의 머리에 꽃힌 옥비녀가 석양빛을 받아 별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따뜻한 주황색으로 보였다.

상상이 6학년이 되었을 때 세마의 양 떼는 이미 백여 마리로 불어나 있었다. 그해 가을 그는 튼튼한 숫양 두 마리와 새끼 잘 낳는 암컷 스물다섯마리를 남겨두고 칠십여 마리의 양을 팔았다. 양을 판 돈은 갓 구워낸 새 기와를 사들이는데 썼다. 그는 어머니에게 큰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상상은 그 기와가 배달되던 날의 가을날 저녁을 기억하고 있다.

39)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2』, 새움, 2008, 8쪽, 76쪽, 168쪽.

벽들은 평지에 쌓아 올려졌다. 빨간색 일색인 벽들이 높이 쌓여 있는 모습은 마치 높은 성벽처럼 보였다. 구씨택은 그 벽들이 마치 금덩이라도 되는 양 끊임없이 어루만졌다.⁴⁰⁾

두소강 역시 비슷한 과정을 통하여 어른이 된다. 두소강의 아버지가 집안의 재산을 한 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두소강도 짧은 시간을 거쳐 성장해버린다. 집안의 곤경으로 두소강은 ‘가장’이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병 간호를 하며, 돈이 없어 학교를 그만 두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오리를 치러 떠났다 돌아온다. 이러한 일들을 겪은 후 두소강은 침착하게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두소강의 성격은 이 몇 가지의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강인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세마와 두소강이라는 두 인물은 고난을 통과하고 책임감을 인내하면서 성숙한 남자로 변하였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역경과 상실을 만나기도 하며,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이 창조해 낸 세마와 두소강이라는 두 아이를 통하여 천진무구했던 소년이 어린 아이다운 면모를 버리고 어떻게 어른으로 변해 가는지를 잘 그려내었다.

4. 『초가집(草房子)』의 예술적 특징

1) 성장 모티브와 자전적 색채

이 작품은 주인공의 초등학교 시절을 다룬 『초가집』, 중학교 시절을 다룬 『빨간 기와』, 고등학교를 다룬 『까만 기와』 등 작가 차오원쉬엔의 성장소설 3부작 중의 한 작품이다. 『초가집』은 작품 첫머리와 끝머리에서 알 수 있듯이 1962년 8월 오전,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목선을 타고 정들었던 유마지(油麻

40)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역, 『힘센 상상2』, 새움, 2008, 119쪽, 123쪽.

地) 읍을 떠나야 한다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 이 작품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아름다운 강남의 수향 마을인 수베이(蘇北)를 배경으로 한 작가의 자선적인 이야기로 전개된다.

1962년 8월, 가을바람에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오전, 열네 살 소년 상상은 갈대를 엮어 엮은 유마지 초등학교 건물 중앙의 가장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다. 상상의 발 아래로 유마지 초등학교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가을 하늘에 부드러운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오동나무 잎사귀가 가을바람에 떨어져 날렸다. 상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콧등이 시큰해지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상은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⁴¹⁾

주인공 상상이 마을을 떠나는 현재적 시점에서 그동안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했던 유마지 초등학교의 ‘초가집’ 교실과 영원히 작별하는 순간으로 처음과 끝을 내고 있다. 혼한 벗짚이 아닌 바닷가 갈대로 만든 ‘초가’ 교실은 교실, 교무실, 교사의 숙소, 활동실, 창고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이 소설은 유마지 읍의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모습이 각 장별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초가 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가난과 곤란, 자연 재해 등은 작품이 쓰여진 당시 1962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창작된 것이다. 실제로 작가 “차오원쉬엔은 1954년 1월, 장쭈성의 옌청(鹽城)이라는 동네와 가까운 농촌에서 태어나 거기서 소년시대를 보냈으며”, “부친은 교사였고, 18세 때 처녀작을 발표했지만 74년 18세 때 북경대학교에 입학하려 고향을 떠나 생활의 장을 북경으로 옮긴 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작품을 쓸 수 없게 되어 고민했다. 하지만 77년에 북경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게 되고 세계의 문학을 접하면서 슬럼프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79년에는 창작을 재개하였다”⁴²⁾고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실제적인 시공

41)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 새움, 2009, 7쪽.

간을 중심으로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더해졌으며, 이러한 작가의 시선을 통해 이 소설이 구성되었다. 특히 소설 속의 주인공 ‘상상’이란 인물은 유마지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작가 차오원쉬엔과 주인공과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상상’이란 인물이 보고 듣고 행동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작가의 어린 시절의 체험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누가 읽더라도 아이들 세계의 성장을 통해 그 시대를 살았던 중국인들에게 동일한 어린 시절의 체험을 연상시키며 행복한 추억에 젖어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 작품은 아동소설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 모티브가 주된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는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성장소설’이란 “‘성장’을 주요한 서사 주제로 하는 문학체제”를 일컫는 것으로, “아동문학 중에는 성장소설과 소년소설이 깊은 친연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소년소설은 성장소설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³⁾ 성장소설에서의 성장은 사랑이나 죽음처럼 아동문학의 주요한 제재로 주로 주인공의 여러 가지 인생 속의 고난과 좌절, 꿈과 희망이 교차하는 성장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내적,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주로 미성년자로 작가의 자전적 색채가 강하며 “천진-좌절-미망-깨달음-성인으로서의 성장”이란 정식화된 서사 형식을 갖고 있다.⁴⁴⁾ 그리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며 자아의 성숙 과정을 겪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다. 『초가집』 속의 주인공은 모두 이러한 성장소설적인 유형에 속한다. 주된 주인공 상상을 비롯하여 대머리 학, 지월, 세마, 두소장 등은 모두 성장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자신의 인생 속에 각자 처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스스로 성장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상상은 주변 친구들, 백작과 장일륜, 진씨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상교와 여선생님 온유국, 동생 유유와의 관

42) 中由美子 著, 『中國の兒童文學』, 久山社, 2006, 87-88쪽.

43) 王泉根 主編, 『兒童文學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9, 211쪽.

44) 王泉根 主編, 『兒童文學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9, 212쪽.

계 속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상상의 모습 속에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백작과 장일룡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편지를 전하며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해 성적으로 눈떠가는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등장한다. 또한 동생 유유(柳柳)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내가 아주 먼 곳으로 떠나야만 하니까” “혼자서 갈 거야” “그곳은 나만 갈 수 있는 곳이야” “비둘기도 데려 갈 수 없어”⁴⁵⁾ 라고 말하며 동생을 업고 높은 성곽을 올라가는 성숙한 오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상상이란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작가의 어린 시절과 비슷한 자전적 색채를 띠고 있다. 상상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물들 모두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인격적으로 한층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는 특히 순수한 인성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세상과의 풍파 속에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아동의 시선을 통한 객관세계의 이해

차오원취엔의 아동소설 속에는 아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아동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는 서사구조를 띠고 있다. 아동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실질적인 이야기의 주체가 되지만, 사실상 그 아동은 작가에 의해 창조된 능동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의 주인공을 창조하기 위해 성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동은 어른보다 순수한 입장에서 주위의 사물들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들에 대해 초월적인 사고와 형이상학적인 사고들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통하여 독자들은 생활 속에서 매우 친숙했던 일상들

45)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248쪽.

이 매우 낯설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적으로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 속의 주인공이 자신의 슬픈 운명에 대한 자각을 통해 비극적인 효과가 더욱 돋보이게 두드러지면서도 완전히 부정적인 의식 속으로 함몰되지 않고, 다시 희망적인 긍정의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은 『초가집』 작품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수법으로 평행적인 병렬식 구성으로 작가의 전지적 시점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이 작품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기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여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면서도 이 작품의 주된 인물인 상상이 작품 전반에 걸쳐 개입하면서 상상의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사상과 동심으로 바라본 세상에 대한 재구성이 돋보이게 된다. 예를 들면, 1장에서 대머리 학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남들의 희롱의 대상에서 자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된 사람으로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나, 백작과 장일륜이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를 중간에서 매개하는 상상의 호기심, 상상이 지월에 대한 마을 아이들의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주는 정의감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진씨 할머니가 학교와 마을 사람들과 대립하는 가운데에서도 상상이 할머니에게 가까이 다가온 마을 사람들이 진씨 할머니를 외면하지 않게 되고 결국 마을의 수호신으로 탈바꿈시킨 것, 그리고 자신의 라이벌 관계였던 홍문의 부잣집 아이 두소강이 아버지 사업의 실패로 귀공자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소년 가장이 되어 학교 정문 앞에서 좌판을 벌리고 삶을 지탱해 가는 굳은 소년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상상이란 어린 아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과 성격적 심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일륜의 피리소리는 아름다웠지만 아주 가끔씩 호흡이 끊어져서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다른 어른들에게는 잘 감지되지 않았지만 상상은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상상은 알 것 같았다. 그때마다 상상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백작 누이를 생각했다.⁴⁶⁾

상상이 지하 공작원처럼 백작과 장일륜 사이에서 연애편지를 전하다가 한번의 배달 사고를 낸 후, 장일륜은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두 사람은 결국 완전히 헤어지고 만다. 장일륜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서 편지를 계속 전하던 상상은 “사거리에서 길을 잃고 선 새끼양이 된 기분”(165쪽)이 되며, 두 사람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결국 파국을 맞고 말았다. 백작은 강남으로 떠나기 전 상상에게 장일륜에게 썼던 편지 보따리를 주며, “이 편지 한 통 한 통은 다 네 손을 거친 것들이야. 예전에는 네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네 거야. 이제 이 편지들을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이 다음 어른이 돼서 다시 보면 그때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속에 네 백작이 있을 테니까.”라고 말했다.⁴⁷⁾ 이처럼 상상은 백작과 장일륜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지월에 대한 그리움과 소년의 풋풋한 애정을 투영했던 것이다. 이것은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춘기 소년의 성적 심리와 사랑에 대한 무한한 동경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상상의 비둘기들은 모두 하나같이 멋지게 생긴 것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상상은 새집을 들고 읍내로 나가 팔았다. 그는 비둘기 판 돈 20원을 가지고 두소강을 찾아가 모두 건넸다.⁴⁸⁾

두소강과 함께 담 아래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상상은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두소강의 손을 짝 움켜쥐었다. 몇 대에 걸쳐 두씨 집안에 자궁심을 주었던 홍문 두 짝이 석양빛에 반짝이며 흔들흔들 멀어지고 있었다. 두소강이 14년 간 보아왔던 홍문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상상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상상은 그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⁴⁹⁾

할머니는 병이 들거나 늙어 돌아가신 게 아니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신

46)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168쪽.

47)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168쪽.

48)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208-209쪽.

49)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212쪽.

것이다. 지난번에는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지만 이번에는 유마지 초등학교의 호박 하나 때문에 물로 뛰어들었던 것이다.⁵⁰⁾

마을에는 노인이 죽으면 손자나 손녀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노인 옆에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진씨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없었다. 누군가 상상 어머니에게 말했다.

“상상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도 될까요?”

상상의 어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 상상을 제일 좋아했으니 상상의 머리카락을 보내는 게 당연하지요.”⁵¹⁾

진씨 할머니(秦大奶奶)는 남편과 함께 평생 일구었던 땅에 초가집을 짓고 살다가 땅이 학교 부지로 들어가자 유마지 초등학교 서북쪽 귀퉁이의 오두막에서 살게 되었다. 학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학교와 지방 정부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지만, 끝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썩을 키우며 살았다. 학교 측에서는 썩을 키운 자리에 수양버들을 심어 ‘통일대업’을 달성하고자 하였지만, 할머니의 전사들-닭, 오리, 거위 등이 학교와 수업을 망쳐버리고 만다. 그 와중에도 상상만은 할머니와 매우 가까워지고 그녀의 심정을 이해해주었다. 그래서 상상은 아버지에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야단맞게 되지만 할머니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학교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었던 할머니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학교의 호박을 따라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루며 상상은 죽은 진씨 할머니 곁에서 밤을 지키며 조금도 무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 진짜 손자처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보며 영원히 할머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아울러 진씨 할머니의 장례 행렬은 전혀 없는 장관을 이루며 묘지 옆에는 썩밭이 만들어짐으로써 마을 사람들로부터 인격과 생명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상상과 진씨 할머니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전

50)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 새움, 2009, 237쪽.

51)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228-239쪽.

개되고 아이의 시선을 통해 어른인 할머니와 친구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친구 세대 간의 상호 만남을 통해 생명 존중과 추구에 대한 작가의 사회 현실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시의(詩意) 풍부한 서정과 풍경 이미지

차오원취엔의 이 아동소설은 기본적으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성인이 읽었을 경우에도 매우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아동소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고난을 극복해 가는 인물들의 성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소설이 지닌 생생한 언어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 아이들의 대화나 심리묘사 그리고 자연스런 서정풍경의 묘사들이 이 작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많은 시의(詩意) 풍부한 서정과 풍경 이미지들이 그려지며 한 편의 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의경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이 작품 세계에서 그려지는 공간이 강남 수향 마을이며, 유마지 초등학교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 풍경이 이 소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설 속 아동의 세계에서 산, 강, 바다, 하늘, 구름, 비 등의 자연풍경과 비둘기, 오리, 닭, 거위 등의 새나 가축들은 매우 친숙한 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이 소설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소재들이 되고 있다.

비둘기들은 낮선 사람의 기척에 놀라 후다닥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상상의 눈에 지월이 들어왔다. 그녀도 갑작스러운 비둘기의 세찬 날갯짓에 놀라 외할머니 팔에 매달리며 목을 움츠렸다. 머리 위에서 흰 비둘기가 빙빙 맴돌고 있었다. 밝고 따뜻한 가을 햇살이 미끄러지듯 날고 있는 비둘기의 몸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졌다. 비둘기들은 낮선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뽐내고 싶었는지 날개를 한껏 펼친 채 유유히 떠 있기도 하고, 내리꽂히듯 하강하다가 다시 높이 날아오르기를 반복했다.⁵²⁾

52)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 새움, 2009, 65쪽.

비둘기들도 내일 아침이면 주인이 자기들을 버리고 영원히 떠난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한 것 같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큰 원을 그리면서 주위를 돌고 있는 비둘기의 날갯짓 소리가 상상의 컷전에 듣기 좋게 울려왔다. 눈앞에서는 금속 같은 하얀 꽃 고리가 쉴 새 없이 반짝였다.⁵³⁾

첫 인용문은 상상이 처음으로 지월과 만나는 장면을 비둘기가 하늘을 나는 장면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평화롭게 그리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호기심과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비둘기를 바라보게 되며 상상은 지월을 만나며 개구쟁이에서 좀 더 성숙된 아이로 성장한다. 상상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를 통해 하늘을 날고 싶은 자유로운 비상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게 된다. 그러나 애지중지 기르던 비둘기들을 상상은 두소강의 좌판 사업 밀천으로 주기 위해 팔아버리게 된다. 두소강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 자신의 비둘기 열 마리를 새장에 넣어 다음날 아침 읍내로 나가 판 돈 20원을 두소강에게 건네준 것이다. 이때 비둘기는 두소강의 새로운 희망과 부활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으로 상상이 유마지 초등학교를 떠나는 순간 다시 한 번 비둘기가 등장한다. 공중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날고 있는 반짝이는 하얀 꽃 꼬리를 지켜보며 어딘가로 떠나간 지월이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상상에게 있어 비둘기는 지월과의 만남과 이별을 암시하며, 하늘을 훨훨 나는 자유로운 꿈과 상상의 산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 속에서 유마지라는 곳은 고전의 향기가 물씬 뿜어져 나오는 도화원과도 같은 이상향과도 같은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 좌절과 희망, 삶과 죽음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극적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모두가 아름다운 미적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구씨 부부가 양자로 데려온 세마라는 인물은 사투리 때문에 친구들에게 촌뜨기라고 놀림을 당한 후 학교를 그만두고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유마지에 대해 느끼는 정감이다.

53)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266쪽.

세마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진 이곳 유마지가 차츰 마음에 들었다. 도처에 논밭과 수목이 펼쳐져 있고 눈만 돌리면 날아다니는 새나 산토끼를 볼 수 있는 곳, 크고 작은 강이 굽이쳐 흐르고 그 위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 그 중에서도 세마는 물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채는 광경을 제일 좋아했다. 멀리서 음매 음매 울어대는 소 울음소리도 좋았다.⁵⁴⁾

물은 오리들에게 영원한 고향인 것이다. 오리들이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먹이를 먹자 힘이 솟는지 앞쪽 하늘을 향해 꺾꺾거렸다. 오리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활하기만 한 강이 더욱 큰 적막감을 느끼게 했다.⁵⁵⁾

주변에서 좋은 냄새가 났다. 푸른 갈대가 펼쳐진 드넓은 여름 갈대밭에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향긋한 풀들이 갈대 사아사이에 섞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두소강은 실 새 없이 코를 벌름거리며 가슴 가득 향기를 들이마셨다.⁵⁶⁾

이처럼 세마의 눈에 비친 유마지는 하나의 이상향과도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새나 산토끼를 도처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강이 흐르며 물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채며 멀리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 그리고 여기에 양떼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을 하늘의 흰 구름처럼 하얀 양들의 털은 목화솜처럼 탐스러웠다”고 느끼며 진정한 양치기로서의 새로운 삶을 부각시켜 주고 있는 곳이다. 구씨택을 위해 양을 팔아 사온 기와와 빨간 벽돌이 석양에 짙은 황토색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세마의 형상을 통해 작가의 끊임없는 애정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 세마에게 자연은 이상향과 같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두소강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두소강은 집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아버지와 같이 강으로 오리를 치러 멀리 떠났지만, 그 속에서 고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결국 폭풍우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리 쌍황란만을 가지고 다시 유마지로 돌아와 상상에게 자신의 전

54)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84쪽.

55)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188쪽.

56) 차오원취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2』, 새움, 2009, 192쪽.

재산을 주었다. 하지만 이 때 두소강에게 갈대밭에서의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잔혹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자연에 대한 풍경 묘사가 상당히 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상호 조화로운 만남이 나타나는 이상향적인 자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작가 차오원쉬엔에게 있어서 “자연은 순수한 자연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을 자신의 심미적 관조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펜과 마음으로 자연 속의 정령, 후광, 생동감 등을 포착하여, 우아하고 능숙한 언어로 우리를 위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청신한 세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⁵⁷⁾

5. 나오는 말

중국 당대 아문동문학사에서 차오원쉬엔의 이 『초가집』이라는 작품은 약 130차 인쇄를 거듭하고 영화화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독자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아동문학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전수정, 양태은, 김택규 등의 번역가들에 의해 차오원쉬엔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번역된 것만으로도 이 작가에 대한 인기도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의 번역 작품들을 통해 일반 독자들도 차오원쉬엔의 아동문학 세계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짐작되지만, 중국 아동문학 연구는 사실상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차오원쉬엔의 『초가집』이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중국의 아동문학 세계에 대해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 작품은 1997년 창작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국 아동문학의 새롭고도 중대한 수확”⁵⁸⁾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작품 연구를 통해 작가의 아동문학 관점과 이 작품의 인물 유형의 서사구도, 그리고 예술적 특징들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57) 張繼榮, 『古典與現代的歌者——論曹文軒小說的審美追求及其表現方式』, 華中科技大學碩士學位論文, 2007, 18쪽.

58) 曹文軒 著,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297쪽.

먼저 본 논문의 분석을 통해 작가 차오윈취엔의 아동문학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차오윈취엔은 아동문학을 창작하면서 북경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1988년에 『중국의 80년대 문학현상 연구』라는 저서를 창작하였다. 이 저서를 통해 그의 아동문학 견해를 살펴본 바, 그는 시종 “아동은 중국의 미래”이며, “아동 문학가는 미래의 민족성격의 창조자”이며, “아동문학 작가는 장엄하고 신성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문학적 기본 명제에서부터 출발하여 아동문학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고 아동문학에서의 고사성이나 서술 언어들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집 부록으로 「문학은 죽지 않는다(文學是不死的)(代跋二)」(2007)라는 출판 10주년 기념 대담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의 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신성한 화제가 아니며 이미 자신의 무의식이 되었다고 서술하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였다. 즉, “아동문학에서 더 나아가서 문학은 인류를 위해 양호한 인성 기초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역할로 해야 한다”고 제기한 것이다.⁵⁹⁾ 이처럼 작가의 아동문학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은 그의 창작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그의 『초가집』은 이러한 이론적 배경 속에서 창작된 매우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62년 8월 강남의 어느 수향 마을의 유마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작품 속 주인공들인 상상, 지월, 독학, 세마, 두소강 등 어린 아이들을 둘러싸고, 백작과 장일륜, 상교 교장과 진씨 할머니 등의 어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성장소설로서의 기본적인 특징을 유지하며 주인공 인물들이 평행식 또는 병렬적으로 각 장에 구성되어 전지적 시점 아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주인공 상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 속에 비쳐지는 학교와 마을의 친구들과의 갈등과 사건, 곤경을 극복하며 희망으로 나아가는 충실한 고전적 작품으로서의 서사적 구도를 갖고 있다. 상상과 지월의 관계는 백작과 장일륜의 연애사건으로 확대되고, 상상과 아버지의 상교 교장의 갈등과 화해의 구도, 마을 사

59) 曹文軒 著, 「文學是不死的(代跋二)」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299

람들과 진씨 할머니의 대립과 화해 등 여러 가지 친구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화해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작가의 이러한 따뜻한 시선 속에 중국 농촌에 대한 작가의 무한한 동정과 사랑,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등이 자전적인 필치로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예술적 특징들을 통하여 작가의 심미의식을 투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적 모티브를 활용함으로써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심리와 성격 변화를 잘 포착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이상향의 세계를 지향하고 동경하는 것에 대해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인공 상상의 시선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세상’과 다르게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의 심리세계는 곧 동심의 세계로 문학본연의 고향과도 같은 정신세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시의(詩意) 풍부한 자연적 풍경과 더불어 아름다운 이미지가 한 편의 시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동화적 상상력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 자연의 동식물들을 활용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사건을 연결시키며 풍부한 아동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차오원쉬엔의 이 작품은 중국 당대 아동문학의 세계를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감동적인 작품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작가의 이러한 아동문학 창작은 후에 그의 다른 성장소설 작품들과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한중 아동소설 비교 연구에도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曹文軒 著, 『草房子』, 人民文學出版社, 2010
- 曹文軒 著, 安武林 評, 『草房子』, 北京少年兒童出版社, 2011
- 曹文軒 著, 『一根燃燒盡了的繩子』, 인민문학출판사, 2010
- 曹文軒 著, 『中國80年代文學現象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88
- 차오원쉬엔 저, 김택규 옮김, 『사춘기』, 푸른숲주니어, 2007
- 차오원쉬엔 저, 양태은 옮김, 『바다소』, 다림, 2005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까만기와』(개정판), 새움, 2009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꿈의 무늬』, 새움, 2005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빨간기와』(개정판), 새움, 2009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상상의 초가 교실』, 새움, 2004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청동 해바라기』, 사계절, 2007
- 차오원쉬엔 저, 전수정 옮김, 『힘센 상상1,2』, 새움, 2008
- 姜超英, 『論曹文軒小說的“成長”內核』, 沈陽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김인숙, 「曹文軒 장편소설 《紅瓦》 연구: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지선, 「중국의 국민도서 『초가집』, 『창비어린이』, vol.8 no.1, 2010
- 김현정, 「중국현대아동문학 형성과정 연구: 梁啓超, 魯迅, 周作人을 중심으로」,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2001
- 梁瑩, 「游走在兩個世界的尷尬」,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徐蘭君, [美]安德魯·瓊斯(Andrew F. Jones) 主編, 『兒童的發現--現代中國文學及文化中的兒童問題』, 北京大學出版社, 2011
- 孫建江, 「中國童話 發展變化過程에 관한 考察」, 『아동문학평론』, 제21권, 제3호, 1996
- 王玲, 『童心的古典守望--論曹文軒的兒童文學觀及創作』, 蘇州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王泉根 主編, 『兒童文學教程』,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0

- 이규정, 『현대소설의이론과기법』, 서울: 박:이정 1998
- 이영구, 「葉聖陶의 童話 研究」, 『중국연구』, 제15권, 1994
- 林煥彰 杜榮琛 合著, 『大陸新時期兒童文學』, 行政院文化建設委員會, 1996
- 張繼榮, 『古典與現代的歌者——論曹文軒小說的審美追求及其表現方式』, 華中科技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蔣風, 「東西文化的 衝擊下에서의 中國兒童文學」, 『한국아동문학연구』, 7집, 1997
- 蔣風, 「中國近代兒童文學의 歷史와 現況」, 『아동문학평론』, 제18권 제3호, 1993
- 周作人 著, 『兒童文學小論』, 河北教育出版社, 2002
- 中由美子 著, 『中國の兒童文學』, 久山社, 2006

<Abstract>

A Study on Cao Wenxuan's "The Straw House"

Park, Namyong · Han, Geul

Cao Wenxuan(曹文軒), a chinese author of children's fiction has written many great novels since 1980's. One of his novels called "The Straw House" was included in the textbook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became a bestseller with amazing circulation record in China. In 1998, this book was even made into a film by director Xu Geng(徐耿), and won many film awards in 1999.

In this paper, I studied the types of characters and description in the "The Straw House" which is Cao Wenxuan's major work among his novel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main parts. In the first part, I dealt with Cao Wenxuan's opinions on the children's literature theory. He thinks that the children are the future of china, so the character of the future of their nation will be created by children's literature. Also,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torytelling and the suitable written style for young readers. In the second part, I looked through the types of characters by classifying them as Sangsang(桑桑), Baique(白雀) and Zhang yilun(蒋一轮), and Xima(细马) and Du xiaokang(杜小康). The author described the childhood which innocent hopes and dreams coexists with poverty and difficulty through these characters. In the third part, I analyzed description of "The Straw House". Cao Wenxuan wrote his own childhood by talking about the worlds of dream and fantasy, and of nature and human, beautifully and lyrically. In conclusion, I expect to find Cao Wenxuan's position and his influence in the history of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studying "The Straw House" from various points of view and understanding its values and impacts on this field.

Key Words : Cao Wenxuan(曹文軒), "The Straw House"(草房子), Sangsang(桑桑), children's fiction, children's literature

투 고 일 : 2012. 1. 10. / 십 사 일 : 2012. 1. 20. ~ 2012. 2. 10. / 게재확정일 : 2012. 2. 17.